

# ‘학부모 등골브레이커’ 교복 시장 개편되나

## 공정위, 고질적 ‘짜짜미’ 관행 근절 위한 연구용역 추진 전국 시장 현황 분석·현장 조사 펼쳐...제도 개선까지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 밀가루 등 ‘국민 생활필수품’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철폐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 등골브레이커’라 불리는 교복 시장을 정조준한다.

교복 분야 시장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교복 시장의 특성, 유통구조 등 시장 전반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추진, 시장 구조 개편에 나선다.

9일 공정위는 최근 교복 분야 시장 분석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작업에 착수했

다. 이번 시장 분석은 개별 담합 사건을 적발과 더불어 교복 시장의 고질적인 ‘짜짜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학교주관 구매제도 등 제도 실효를 파악해 소비자 부담을 줄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공정위는 교육부의 교복비 전수조사 데이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특정 지역이나 학교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적인 시장 현황을 분석에 나선다.

또 제품 종류와 사업자 유형별 원가구조, 원재료의 가격변동 검토를 통해 가격 결정 요인도 심층 분석한다.

이를 통해 브랜드 프리미엄이나 불투명한 유통 마진 등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을 면밀히 검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 공정위는 형지엘리트, 스마트, 아이비클럽, 스텔러스 4대 교복 제조사와 전국 40개 내외의 대리점을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를 살펴보는 현장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달까지 전국 중·고교 5700여곳을 대상으로 가격 적정성 전수조사에 나선 결과 역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된다.

교복은 2000년대까지 개인이 자율로 구매하는 방식이었으나 특정 브랜드를 중

심으로 비싼 가격이 책정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2015년부터 학교장이 입찰 공고하면 교복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뒤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낙찰되는 방식인 학교 주관 구매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 도입 후에도 특정 업체가 낙찰되도록 다른 업체들이 일부러 비싼 가격을 써서 들러리를 서는 방식의 담합이 꾸준히 적발됐다.

실제 광주지역에서도 지난 2023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입찰방해 혐의로 교복 납품·판매업체 45곳의 대리점 업주 31명이 불구속기소됐다.

이중 교복 대리점주 29명이 같은 해 12월 입찰 방해와 독점 규제·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정위는 최근 지난 2023년 광주지역 소재 중·고교 교복 구매 입찰에 앞서 낙찰자와 들러리 입찰자 등을 정해 실행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추후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담합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 교육 시민단체의 ‘2026학년도 광주지역 중·고교 교복 입찰 현황’에 따르면 낙찰자 투찰률이 90% 이상인 학교가 12곳(고교 8곳·중학교 4곳)에 달했다.

낙찰자 투찰률은 입찰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비율로, 수치가 높을수록 낙찰 가격이 예정가에 근접했다는 의미다.

이는 가격 인하 경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담합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복 시장 내 경쟁 촉진과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와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담합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담합의 경우 적발만으로 과징금 부과율 하한을 현행 관련 매출액의 0.5%에서 10%로 20배 대폭 상향된다. 중대한 담합은 3%에서 15%로 5배, 매우 중대한 담합은 10.5%에서 18%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윤용성 기자 yoi404@

##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기업 모집 5~49인 중소기업 15개사 대상

광주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2026년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 중소기업 15개사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신재사고 감축과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광주상의는 지난 2024년부터 해당 사업을 위탁받아 지역 기업 지원을 맡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광주·전남지역 5인 이상 49인 이하 중소기업이다. 최근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소규모 사업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공동안전관리자가 매월 1회 이상 사업장을 방문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한다. 공동안전관리자는 광주상의의 소속 노무사가 맡아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사업장 내 위험요인 개선을 지원하고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해 지역 기업의 대응 능력을 높일 것이다”고 말했다. 송대호 기자 sdw091@



광주신세계 본관 7층 스노우피크 매장서 직원이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있다.

## “광주신세계서 봄나들이 준비해요” 스노우피크 최대 70% 할인...사은품 증정도

㈜광주신세계가 봄철을 맞아 야외 나들이를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한 맞춤형 행사를 마련해 눈길을 끈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15일까지 본관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스노우피크’ SS상품 대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세계백화점 최초로 스노우피크의 대형 이벤트를 준비한 만큼 많은 고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에는 티셔츠와 바지, 바람막이 재킷과 가방 등 2025년 SS시즌 이월상품을 정가가 대비 20~7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여성 모자 (1만9000원), 맨투맨 (3만9000원), 방수 재킷 (8만9000원) 등이 있다.

행사장 기간 중 1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양말을, 3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스타벅스 1만원 기프트 카드를 증정

한다. 사은품은 한정수량으로 조기 품절될 수 있다.

김윤철 광주신세계 패션팀장은 “봄나들이를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해 스노우피크 SS상품 대전을 신세계백화점 최초로 기획했다”며 “인기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 가능한 이번 기회에 많은 고객이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스노우피크는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로 텐트 등을 생산하며 탁월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아웃도어 활동에 필요한 아우터부터 일상 생활에 적합한 의류까지 선보이며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윤용성 기자 yoi404@

## KT, 3년 이상 장기 미사용 번호 직권해지 타인 사용·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 방지 차원

KT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장기 미사용 회선을 직권해지한다.

KT는 일시정지 기간 초과 및 장기 미사용 상태인 휴대전화 또는 스마트 기기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에 걸쳐 이용계약을 해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직권해지 대상은 지난 2023년 3월 이전에 정지를 신청한 뒤 현재까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회선들이다. 번호 유지를 원하는 이용자가 있다면 오는 25일까지 가까운 대리점, KT플라자나 고객센터로 연락해 ‘사

용 중’ 상태로 변경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오랜 기간 방치된 번호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되는 피해를 방지하고 망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KT 관계자는 “장기 미사용 회선을 대상으로 타인 사용 및 보이스피싱 등 고객 피해 방지를 위해 이용약관에 따라 직권해지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자들의 이번 조치가 별도의 정책 권고에 따른 것은 아니면서도 필요할 경우 추가 심사를 권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은지 기자 eunji@gwangnam.co.kr

## aT, 온라인도매시장 시장관리운영위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최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제1차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는 운영 내실화 및 이용자 신뢰 제고를 위해 거래실적 전수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제도개선 및 중장기 발전방안 등 대책수립도 논의됐

다. 이에 따라 aT는 차관을 단장으로 한 ‘온라인도매시장 제도개선, 활성화 TF’를 발족, 지난 2024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전체 거래실적에 대한 회계·법무 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정밀검증과 보조금 집행 적정성 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판매·구매자 등 시장 참여자의 현장 의견과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오는 5월 말까지도 출할 예정이다. 나주·조환천 기자 pose007@

세상과 함께, 문화와 함께 광남일보 매거진

# 전라도人

구독문의: 062)370-7080 2026.03 vol. 154  
광고문의: 062)370-7070

커버스토리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초대석**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달의 CEO**

서형호  
휴바스코리아 대표

**화제의 인물**

남영숙  
대한민국 화워 명장

**남도예술인**

정성우  
씨네로드 대표